

## 교회소식

오늘 오후에 선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5, 6월 새교우와 담임목사의 미팅이 오늘 오후 1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중구용산지방 남선교회 계삭회가 오늘 오후 4시 이태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음성 친환경 복숭아 주문 받습니다. 4.5kg 1상자 39,000원(18-20알) 44,000원(15-17알) 50,000원(13-14알) 7월 25일 택배 배송. 친환경 사과나무도 분양합니다. 135,000원(5kg 5박스 + 과즙 1박스)

상대방을 향한 거친 말들(판단, 정죄의 언어)을 삼갑시다.

행 11:19-26

오늘 식당 봉사 : 이소애 오미숙 이영란 이소혜 박유경 변재민 강세기 김성우  
 다음 주 식당봉사 : 정영선 홍춘숙 김애순 김경혜 안현숙 배삼순 김정훈 곽상준  
 오늘설거지봉사 : 청년부  
 다음주설거지봉사 : 교회학교 교사  
 커피 판매 봉사 : 4남선교회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의  
 오  
 모으로  
 상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강림 후 제 9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2. 만유의 주재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밤낮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실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길 원합니다. 때때로 힘겹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가야할 길을 바로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오랜 시간 쌓아온 수고가 한순간에 사라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울면서라도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잔혹한 테러로 80여 명이 사망한 프랑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나라 프랑스가 이 아픔과 고통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도와주십시오. 희생자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가족들의 찢긴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연이어 들려오는 참담한 소식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호12:5,6 ..... 인도자

♣ 교 독 문 ..... 40. 시편 96편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안홍숙 권사

2부응답송 ..... 찬양대

2부찬양 ..... 373. 고요한 바다로 ..... 다 함께

♣ 성경봉독 ..... 율 1:10-14 ..... I. 인도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 다 함께

찬 양 ..... 사랑의 주 예수 ..... 찬양대

말 씬 ..... 방관의 죄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함께

##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상준	최경미	김명순	이교영	김명희	김미향	김용길	최영혜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김훈동	유경순	문금석	박규석	박경선	박기영	박예림	박옥순
백성래	변재민	이소혜	설규범	심상숙	오슬기	오진훈	노순옥	이광석	이경희
이미휘	이영욱	장은주	이용현	이재문	이재은	이주영	오재영	이준림	이진영
한양미	임호성	전영린	김행자	정복순	정연경	정연희	정영례	조문규	진정숙
조순덕	주은경	최 숙	최옥자	최진성	최영은	허성호	진은혜		

### 감사헌금

강성도	고인성	최소라	곽권희	권미정	김남홍	김애순	김영호	김정희	김해선
김혜라	류형운	최지현	박순섭	권미숙	박재영	이현정	신해정	안정준	오미숙
오민용	오진훈	노순옥	이경준	이미정	이봉옥	이순이	이완구	정복순	정의로
최미선	추은총	무명20							

### 녹색꿈헌금

박해남 이진영 한양미 임선양 신현숙 무명7

### 생일감사헌금

권하영 안정숙 이효원 한상익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방학	청파1속	김재흥	방학
안 디 옥	최경미		청파2속	송형운	
가 나 안	장영숙		청파3속	하현철	
베 다 니	박홍재		청파4속	김정민	
시 온	권미숙		청파5속	장영숙	
에 베 소	백혜숙		청파6속	신진식	
빌 립 보	곽권희		청파7속	김재환	
가버나움	안홍숙		청파8속	이범석	
나 사 렛	김경혜		청파9속	김인걸	
			청파10속	장영숙	

## 배부른 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멋진 사람들  
작은 쪽배를 타고서도  
어두운 밤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을 따라서  
나도 작은 배를 타고  
파도를 건너 가며/ 고독이 기른 눈빛으로  
아름다운 당신과  
내 사랑하는 당신과  
세상을 다 가진 듯 취한 밤  
난 좋은 꿈을 꾸었네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멋진 사람들  
작고 낮은 집에 살아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을 따라서  
나도 작은 집을 짓고  
겨울을 건너 가며/ 고독이 기른 눈빛으로  
아름다운 당신과  
내 사랑하는 당신과  
세상을 다 가진 듯 취한 밤  
난 좋은 꿈을 꾸었네요

- 권나무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2부찬양	양	.....	하모니
♣	봉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타인의 불행을 방관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신음 소리를 '나의 일 함께 하자'는 주님의 초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계속해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할 때에 그 고통은 어느 날 우리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다함께:	아멘. 나의 일상에만 매몰된 채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그들의 신음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복	.....	담임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이형숙 권사	황현성 집사

7월	1부 영접위원	이부용 박숙미			
	1부 헌금위원	하현철			
	2부 영접위원	김인걸	윤성종	박기영	주은경 김윤정 김경혜 홍춘숙
	2부 헌금위원	한완식 정경례			

믿음으로 읽는 글

## 무거운 삶 가볍게 살기

... 새벽 3시면 일어나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고 말했지요? 얼마나 힘들까. 진중하면서도 편안하게 사람을 대하는 예의바른 분인 것은 알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줄은 몰랐어요. 어찌 조금 지쳐 보인다고 생각만 했지요. 우체국 택배 일을 하면서도 저녁에는 대학에서 공부까지 하고 있으니 잠이 부족할 수밖에요. 그런데도 조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더군요. ...

여러 해 전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그림 한 점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지로데(Anne-Louis Girodet 1767-1824)가 1806년에 제작한 '대홍수The Deluge'였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시기를 살았던 그는 어쩌면 그 시대의 혼란을 대홍수에 빗대 그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한 사내가 나직한 절벽에 서있는 고목을 붙들고 아내와 자식들을 건지기 위해 절망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위에 완강히 버티어 선 그의 두 다리는 터질 듯 긴장되어 있고 공포에 사로잡힌 두 눈은 튀어나올 것만 같습니다. 그는 넘실거리는 물결 위 바위 턱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여인의 오른손을 꼭 붙든 채 끌어 올리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왼손으로 역시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린 어린 아기를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여인의 몸은 활처럼 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 하나가 일렁이는 물살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여인의 목과 머리채를 뒤에서 꼭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기력이 다 빠졌는지 축 늘어져 있습니다. ... 사내의 등에는 아버지로 보이는 노인이 매달려 있습니다. 노인의 발은 허공중에 늘어져 있고 눈뜬 기력조차 없는지 두 눈을 감고 있습니다. ... 설상가상으로 그 사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무는 그 가족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부러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무게를 다 짊어진 채 심연의 공포를 견뎌내고 있는 그 사내의 모습에서 나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뭐라 대답하기가 어렵습니

다. 그냥 아팠습니다. 그리고 얼토당토않게 삶이 참 고단하다는 생각이외에는 아무 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정성균의 시에 장사익이 엮어 부른 '삼식이'라는 곡입니다.

소낙비는 내리구요 허리띠는 풀렸구요  
엷은 애기 보채구요 광우리는 이었구요  
소코뱅이 놓치구요 논의 뚝은 터졌구요  
치마폭은 밝히구요 시어머니 부르고요  
똥오줌은 마렵구요 어떤 날 엄마 어떤 날 엄마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광경이 떠올라 덩달아 마음이 급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사셨지' 하는 생각만 듭니다. 4·4조의 리듬에 “~구요”라는 각운이 이 노래를 듣는 이의 마음을 다급하게 몰아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절창인 것은 그 다음 대목입니다. 갑자기 어린 아이들이 등장하여 맑고도 투명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엄마 엄마 이리 와 요것 보셔요. 병아리떼 뽕뽕 놀고 간 뒤에 미나리 파란 짝이 돌아났어요. 미나리 파란 짝이 돌아났어요.” 오수경 선생의 동시에 박재훈 선생이 곡을 붙인 동요 <봄>입니다. 어머니가 처한 다급한 상황과 무관하게 터져 나오는 저 천진한 노랫소리는 마치 삶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듯합니다.

지로데에서 장사익으로 생각이 마구 춤을 추고 있네요. 힘겨운 조건 속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것을 고스란히 자기 삶으로 수납하며 사는 ○○○님의 모습에 내가 적잖이 감명을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것은 약자의 버릇이라지요?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뛰어넘어 누가 뭐라 든 자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또 하루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잘 전달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기석, 「세상에 희망이 있느냐고 묻는 이에게」(꽃자리) 중에서